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07년 봄 | 17호

특집 茶 | 박물관 탐방 세종돌박물관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옛 돌솥에 새긴 銘 / 野言 | 유물사랑 梅花雜念 | 답사기 미안마, 황금보다 찬란한 佛心の 나라
박물관사람들 젊은 그들 박연희 | 특설강좌 과제물 숨쉬는 자유를 꿈꾸는 물고기 | 학술상 수상논문 5~6세기 新羅 裝身玉 2例의 檢討 | 회원에우 및 혜택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연 자 간

달빛도 거지도 도적개도 모다 즐겁다
풍구재도 얼력소도 쇠드랑벌도 모다 즐겁다

도적괭이 새끼락이 나고
살진 쪽제비 트는 기지개 길고

훼냥닭은 알을 낳고 소리 치고
강아지는 겨울 먹고 오줌 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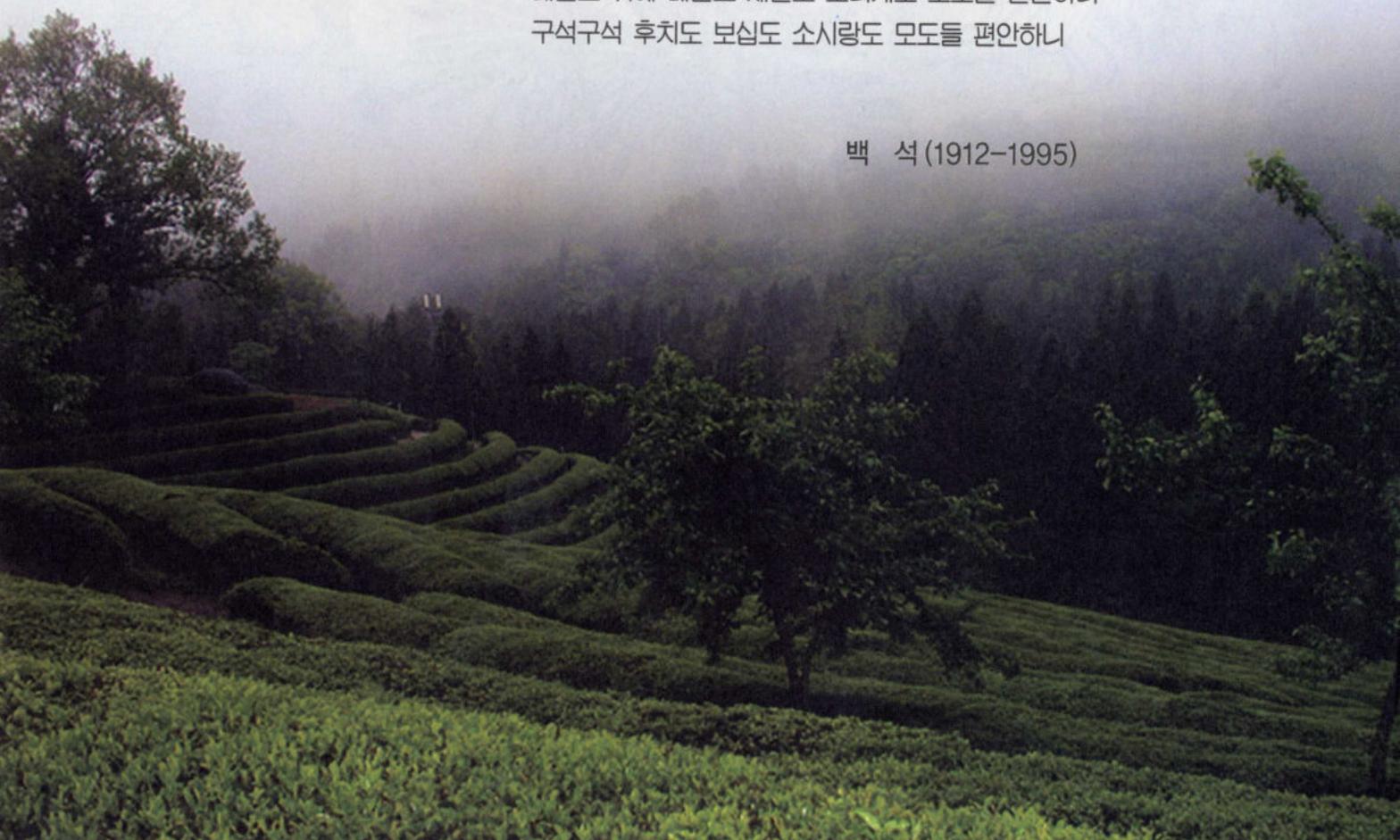
개들은 게모이고 씹지거리하고
놓여난 도야지 동구재벼 오고

송아지 잘도 놀고
까치 보해 짓고

신영길 말이 울고 가고
장돌림 당나귀도 울고 가고

대들보 위에 벼틀도 채일도 토리개도 모도들 편안하니
구석구석 후치도 보심도 소시랑도 모도들 편안하니

백 석 (1912-1995)



茶와 찻그릇

'靜坐處茶半香初 妙用時水流花開'라는 추사의 글씨는 茶禪一味의 깊은 묘경을 표현한 것이다. 흔히 禪과 차를 걸부시키는 까닭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 禪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경지라는 말이다. 음식이 몸을 위한 것이라면 차는 정신을 위해 존재한다. 또한 차 한 잔은 우리 몸의 오감을 고루 만족시킨다. 차 잎을 고르고, 물을 붓고, 그 청아한 색이 우러나도록 충분히 기다려 한 모금 마시는 것이 바로 禪에 입문하는 순간이다. 오묘한 빛깔과 향기에 취해 이윽고 정신의 눈이 뜨여진다.

인류 역사에 차가 등장한 것은 실로 오래다. 신농씨부터 B.C 2세기까지의 많은 기록들은 신화나 전설로 취급하더라도, 前漢 宣帝[B.C 1세기] 연간에 작성된 「僮約」의 기록은 인정해야 한다. 이를 보면 중국에는 벌써 차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차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後漢과 魏·晉 남북조 시대를 지나 隋에 이르러 차를 국가에서 장려했고, 唐代에 陸羽의 《茶經》(780년경)에서부터 기호음료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송대의 研膏茶에 이르러 절정기를 맞는다.

한편 우리나라는 차의 자생설 보다는 전래설이 더 인정받고 있다. 1세기 허황옥의 도래와 같이 했다는 주장과, 4·5세기에 불교의 전래와 같은 시기, 혹은 828년 중국에 다녀온 사신 大廉이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 아래 심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이나 기록 및 유물들로 보아 늦어도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치는 시기에 차는 생산되었다고 본다.

신라가 통일을 이루고 발해가 건국되면서 對唐交易이 잦아져, 차문화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元曉·月明師·忠談師의 기록이나 석굴암 벽면에 부조된 보살의 寶鉢, 임해전지의 찻그릇, 茶淵院銘의 기와 등으로 보아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는 송의 영향으로 연고차가 유행하고, 우리 차문화가 크게 꽃피는 시기다. 나라에서는 茶房이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茶時 제도가 있었으며, 절에는 茶堂을 따로 두었다. 따라서 普照國師나 懶翁和尚 등 禪家 뿐 아니라, 李奎報·李齊賢·李穡 등의 선비 차인들도 많이 나왔다. 특히 이규보나 이색은 우리 차문화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고, 차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겼으며, 그 정신적 깊이를 더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전대의 제도를 이어받았다가 다시 정비하여, 寺社중심의 차문화가 선비중심의 차문화로 옮겨 간다. 명이 건국

되면서 散茶文化가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조선에서도 산차가 많이 만들어졌다. 그릇들도 자연스럽게 청자보다는 분청을 거쳐 백자시대가 전개되었다. 흔히 조선에는 차문화가 絶滅되다시피 하다 茶山과 秋史·艸衣 등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조선 전기만 해도 金時習·徐居正·柳方善 등과 金宗直을 중심으로 한 문하에 南孝溫·曹偉·李穆 등 기라성 같은 차인들이 많이 나와 차문화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특히 이목은 「茶賦」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심오한 다서를 지어 우리의 차정신을 高揚시켰다. 나라에서도 사신접대에 茶禮를 빠뜨리지 않았고 선가에서도 다승들이 계속 배출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르면서 우리 차문화는 한때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復古되면서 선비들의 차생활은 계속되었으니, 이는 우리 차문화가 家風과 學風 및 宗風으로 이어지는 특징 때문이다. 집안의 父祖나 스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온 것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계승되었다. 차인들도 休靜을 위시하여 선가에서는 逍遙太能·

兒庵慧藏·艸衣意恂 등의 다승들이 이어지고, 유가에서도 李滉·李珣로부터 李廷龜·申欽·金萬重·任相元·申景濬 등의 차인들이 나왔다. 후에 李德履는 適地에서 〈記茶〉라는 우리 차에 관한 기록을 남겼고, 다시 19세기에 들면서 丁若鏞·申緯·金正喜 등과 초



의가 등장하여, 「東茶頌」을 저술하여 차문화의 중흥기를 맞았다.

이 시기에 오면 나라에서도 차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 보려고 애썼으나, 국력이 쇠약해지고 외세의 힘에 눌려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만다. 그렇게 우리 차문화가 단절되고, 일제에 의한 새로운 그들의 차문화가 미약하게나마 옮겨왔다.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의 전통을 확립하기도 전에 일본 茶道가 다시 밀려들었다. 이즈음은 또 중국의 茶藝文化에 심하게 傾倒되어 그들의 차와 다법을 익히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다. 웰빙 바람을 타고 차의 붐이 이는 것은 좋은 일이나, 바른 우리 차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로부터 그릇과 음식문화는 그 명맥을 같이 했다. 그 중에도 飲茶文化는 역사가 길뿐 아니라 시대와 차종에 따라 그릇의 형태가 다양해서 陶器文化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컸다. 도자산업으로 유명한 하남성 공현에서는 차 그릇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도자로 된 陸羽像을 하나씩 주었다. 그리고 차를 파는 사람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로 만든 우수 상에 차물을 끼얹으며 변창을 빌었다. [昔鞏氏陶器 肖鴻漸像 沽茗者必祀而沃之; 茶疏] 이는 차가 도자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우리 역사상 차그릇은 가야나 신라를 중심으로 한 軟質陶器[土器] 高杯等屬의 찻잔에서부터 7세기경으로 알려진 안압지에서 출토된 言貞茶榮의 그릇과 辛審龍王銘의 그릇이 초기단계로 보인다. 통일 후 충담의 찻잔이나 석굴암 벽면 보살의 찻잔도 모두 자기류의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무령왕릉의 왕비 머리맡에서 발굴된 銀銅托盞처럼 굽이 높거나 탁이 있었을 것이다.

고려에 와서 도요지가 개경 근처에서 강진으로 옮겨져 청자 茶器들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문화가 꽃피게 되었다. 비색청자 특히 상감 청자의 碗에 흰 乳華가 떠오르는 모양을 차인들이 높게 평가했다. 이제현의 茶詩 <송광 스님이 햇차를 부친 은혜에 붓 가는대로 적어 방장실에 부치다>를 보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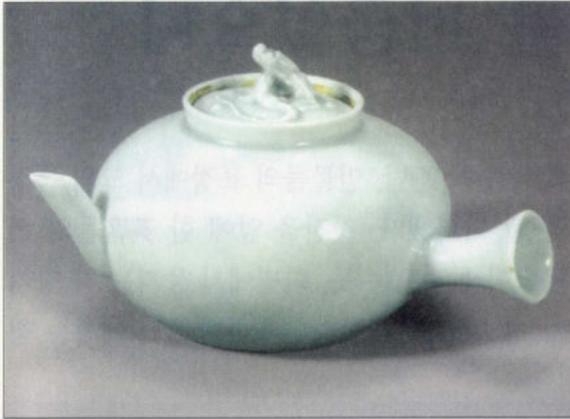
맑은 향기는 한식 전에 따왔는지
 香靑含摘火前春
 고운 빛깔은 숲속의 이슬을 머금은 듯
 色嫩尙念林下露
 돌솥에 찻물 끓는 소리 솔바람 부는 듯
 甕甕石銚松籟鳴
 자기 찻잔에 도는 무늬는 꽃망울을 토한다.
 眩轉瓊甌甌花吐

徐兢이 쓴 高麗圖經에는 고려의 찻그릇 중
 에 저들의 金花鳥盞과 같은 흑유 잔을 좋게 평
 가한 기록이 있다. 黑釉碗이 窯變을 일으키면
 토끼털 모양의 무늬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차
 그릇들이 많았음을 말해준다. 같은 차 그릇이
 라도 의식에 쓰인 것은 약간의 구분을 두었
 다. 托을 받치고 있는 잔이나 佛殿에 사용된
 淨瓶은 일상 사용한 것은 아니다.

여말 선초가 되면 새로운 분청시대가 열려
 印花나 귀얄 무늬의 碗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그 수가 여럿 전해지고 있다. 순박
 하고 꾸밈없는 자태가 우리와 너무나 닮았다.
 우리나라에서도 明의 영향으로 산차를 마시
 게 되면서 청자보다는 백자 茶具가 필요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백자요가 많아졌다. 이에
 官窯도 金砂里에서 分院에 이르기까지 청화
 백자가 등장한다. 백설 같은 찻잔에 연록의
 다탕이 고이고 향기 퍼지는 가운데, 마음 통
 하는 사람과 고아한 담소를 나눈다면 이보다
 더 좋은 茶席은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지방요에서 만들어진 걸작품 이
 도다완[井戶茶碗]을 위시해서 미시마[三島-粉
 靑茶碗], 하계메[귀얄문 다완], 고모가이[熊川
 茶碗-鎮海] 등의 다완들이 일본에서 아주 진
 귀하게 대접받는데에 힘입어, 우리 도공들이
 모작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도
 자업계에 차가 미친 영향도 실로 막대하다.





다기가 없었으면 광주, 여주, 이천, 하동, 강진, 문경 등의 수많은 도공들이 모두 무엇을 하고 있을까.

더구나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차 인구가 늘어나서 요지와 도공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차 관계 전시나 행사에는 반드시 茶器 전시회가 같이 열리는 것을 보아도 차와 도자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그래서인지 경지에 이른 차인들은 대부분 도자에 관해서 거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이가 많다. 이로 미루어 보아 도자기를 알려면 차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다기는 원래 지금처럼 종류가 많지 않았으나, 茶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취향과, 차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것이 조금씩 더해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그릇을 두루 썼으나, 후대에 오면 차종에 따라 갈무리하고, 달이고, 마시는 그릇이 모두 달랐다. 점점 분화되어 育器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옛날에는

물 끓이는 기구로 甁을 쓰기도 했고, 속우라는 것이 컷대그릇 형태도 아니었으니 비교적 단순했다.

중국에서는 송대에 연고차의 영향으로 청자요인 吳窯·越窯가 알려졌고, 후에 景德鎮의 이름이 세계로 퍼졌다. 명·청대를 지나면서 발효차가 등장하여 열 보존이 잘 되는 紫紗茶器의 발전으로 지금의 宜興이 생겨난 것이다. 고려에도 연고차가 들어오면서 송대의 청자가 수입되다, 康津窯등에서 국산화를 이루고 상감청자를 낳았다. 그런데 우리 고고학계에 선 차문화의 심오함에 대해 거의 모르거나 피상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 뿐만 아니라 차 그릇에 대한 명칭도 통일된 용어가 정립되지 못했다. 碗·甌·盞·杯·盂·鉢·鐘 등은 물론 沙鉢이나 甫兒[보시기]등도 아직 제 각각 임의로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하루빨리 올바른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 7리

달빛이 차 향기를 머금었으니

그림은 생활의 기록이고, 당대를 산 사람들의 사상이다. 차 문화가 繪畫史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차에 대한 그림으로는 고구려 안악 3호분의 夫人圖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차문화의 절정기를 맞았던 고려시대 茶畫가 남아있지 않아 아쉽기만 하다. 상대적으로 조선시대의 그림들은 많이 전해진다. 초기 다화작품으로 申末舟가 그린 <十老圖像楔圖卷>이 있다. 문인 10명의 契會를 기록화로 남긴 것으로, 6명의 茶母가 등장하는 다화임을 알 수 있다. 후손인 申景濬이 姜世晁과 金弘道에게 부탁해서 그린 移模本도 전한다.

李慶胤의 <高士談笑圖> <月下彈琴圖> <舟遊彈琵琶圖> <芭蕉試筆圖> 등은 전문화가의 작품답게 산수·인물 등에서 기량을 발휘했다. <고사담소도>

의 구도와 준법, 인물들의 표정에서 그의 특징을 잘 나타냈다. 찻잔을 앞에 한 茶客들의 선문답이 들려오는 듯, 화면에서 풍기는 차 향기가 방 안 가득해진다. <월하탄금도>에서는 힘



月下彈琴圖

찬 붓의 기운이 주인공의 거문고 소리에 서리고, 달빛이 차 향기를 머금었다. 주인공의 겸소하고 후덕한 茶性을 잘 그렸으니, 화가의 드높은 운치는 <茶疏>에 나오는 宜啜[차 마시기 좋은 때]의 경지를 넘어섰다.

산수에 능한 金斗樑은 <四季山水圖>의 [秋]에 차 그림을, 沈師正은 박쥐신선 張果의 얘기를 담은 <松下問月圖>에 茶童을 그렸다. 또 崔北의 <觀瀑圖>, 李寅文의 <樓閣雅集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金得臣은 <行旅風俗圖>의 한 폭에 일상적으로 茶爐가 준비된 집안 풍경을 넣었다.

金弘道는 <群賢圖> <西園雅集圖> <蕉園試茗圖> <煎茶閑話圖> <黃庭換鵝圖> <蓬萊仙境圖> 등 다화를 가장 많이 남겼다. 단원 다화의 특징은 그림 속에 차의 禪的 분위기를 잘 표현한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申潤福이 <高士人物圖>를, 李義養은 <春宵雅集圖>를, 李命基는 <松下讀書圖>를 남겼다. 그리고 한참 지나 張承業의 <松風流水圖>, 趙錫晉의 <竹林七賢圖> 등 많은 다화를 볼 수 있다.

李麟祥의 다화는 淡率한 文氣가 남다르다. 그의 <松下授業圖>는 야외수업 장면을 담은 그림이다. 큰 바위를 배경으로 스승은 방건에 도포까지 입은 단아한 모습이고, 제자도 도포에 탕건으로 예를 갖추었다. 한참 중요한 이론을 전개하는 듯한데 옆에 주전자와 찻잔이 있다. 큰 바위와 露根의 노송은 곧 스승의 학

문과 덕성이며 흔들림 없는 인격과 절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제자 너머로 보이는 작은 나무는 뒤쪽의 노송과 대조적인 인물들을 대신한 듯하다. 스승의 자리는 높는데 제자를 낮게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의 구도이다.

그 옆에는 野菊 두어 포기 향기를 품고 근엄한 분위기를 감싸서 운치를 더한다. 이를 두고 茶席花라고 한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그 속에도 젊은 제자는 국화 한 가지를 꺾어서 옆에 두고 그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듯, 표정이 아주 밝고 미소까지 머금고 있다. 바로 화가의 傳神寫照 기법이니, 보이지 않는 畫意가 붓끝을 통해 화면에 이루어진 세계리라.

반면 책에 몰입해 삼매경에 도달한 스승은 입을 꼭 다물고 깊은 思量에 잠겨 있다. 눈을 내리 간 표정과 머리형상만 보아도 전형적인 선비의 고집이 발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앉은 자세나 옷 매무새 하나 흠어진 데가 없는 것은 다성이 몸에 밴 차인의 모습이다. 露根에 촛점으로 처리된 노송은 가지를 옆으로 늘어 뜨려 낙낙장송의 기품을 보이면서 가운데 바위를 얹혀 구도가 안정되고 그 안에 인물을 그려 아늑하게 했다.

李在寬은 圖畫署 출신이다. 趙熙龍의 말을 빌리면 그는 앞뒤 백년 사이에 하나 나올 정도의 뛰어난 천재 화가로 傳神에 출중했다. 훼손된 태조 御眞을 重撫한 공으로 登山僉使가 되었다. 그의 <午睡圖>는 구도나 기법 및 내용에

文氣가 가득하다. 그림의 배치는 對位的인 것 같으면서 삼각 구도를 취하였다. 소나무와 암벽이 마주하고 그 사이에 草屋의 書室을 앉히면서, 앞쪽 암벽 일부를 벽으로 쓰고 있다. 이는 주인공의 자연관이 집과 암벽을 구분하지 않는 일체감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에 高士와 학과 동자를 삼각으로 배치하면서, 각각의 시점을 다르게 하여 그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음을 표현했다.

화제의 禽聲이란 그림 내용으로 보면 학의 끼룩대는 소리일 것이다. 고사는 그 소리를 자연의 음악으로 듣고 첫 잠이 푹 들었는데, 동자는 한 쌍 학이 만드는 사랑의 멜로디를 騷音으로 듣고 선비가 잠에서 깨어나 앓을까 돌아보고 있다. 어쨌든 이 셋의 공통분모는 소리이다.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바람소리도 옆을 흐르는 개울물 소리도 함께 할 수 있고, 거기에 차 끓는 소리는 빠뜨릴 수 없는



松下授業圖

손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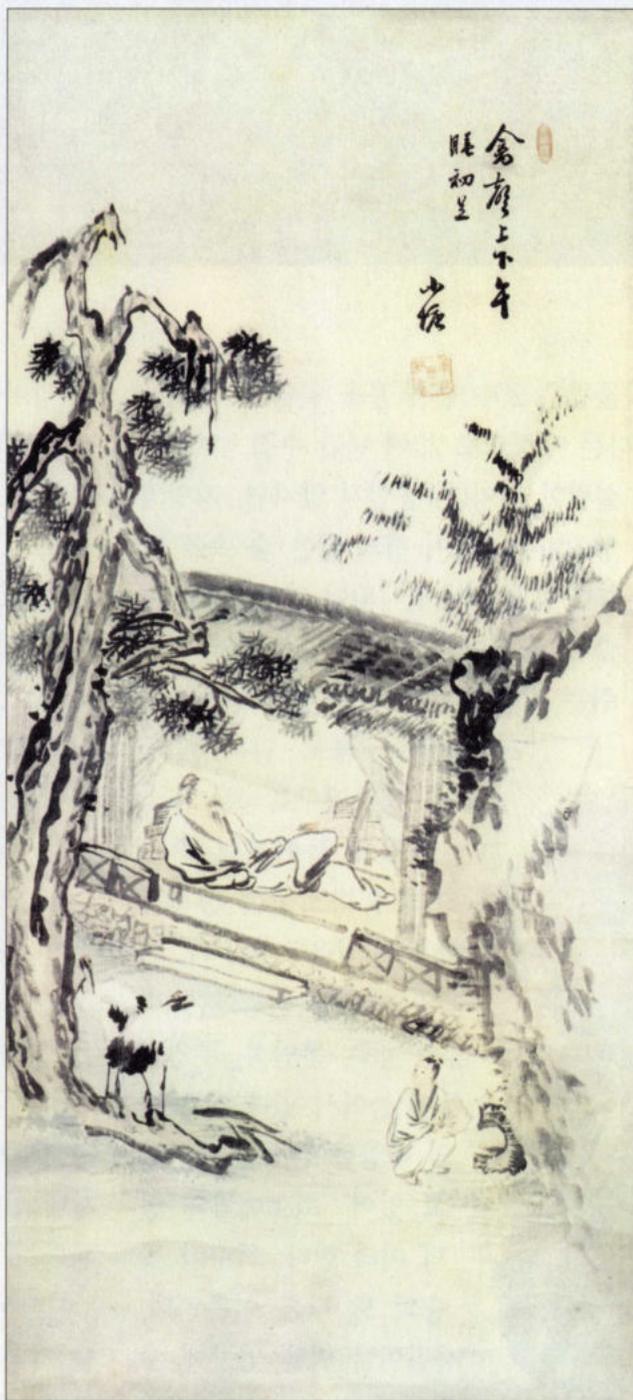
古氣 蔚然하게 가지를 늘어뜨린 노송은 馬遠의 技法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연륜이 서린 줄기와 介字 모양의 잎이 원근을 맞추어 농담이 다르게 표현되었다. 소나무와 학은 백발을 이고 있는 주인과 서로 잘 통한다. 玄學의 서적을 읽다가 책에 기대고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다항 속에 잠드는 주인공은 벌써 신선이다. 그는 대가답게 오른쪽 암벽 하나에도 浙派

인 馬·夏의 법에다가 米點까지 찍고, 아래를 쓱 들어가게 해서 비바람을 피하며 차를 달일 수 있게 했다. 後庭에 세운 나무는 垂葉點을 찍어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붓을 무척 아꼈다.

이 모두가 차를 매개로 이루어졌으니, 세속을 떠나 천지를 호흡하며 그 우주적인 법대로 살아가는 주인공은 이미 다성에 젖어 心齋나 坐忘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겠다. 그 題跋은 ‘새 소리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 낮잠이 폭 들었네. [禽聲上下午睡初足]’ 이다.

중국 다화의 경우 고대 분묘벽화들도 많으나 唐代에 그려진 <蘭亭圖> <調琴啜茗圖> 등과 송대 劉松年의 <攬茶圖> <鬪茶圖> 휘종의 <文會圖>가 있고, 그 뒤에 그린 수많은 <陸羽試茶圖> <盧仝烹茶圖> 등이 있다.

이상이 다화가 가지는 특징이라면 禪的인 소재와 탈속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했다. 소나무·거문고·학·茶爐 그리고 시문이 곁들여져 있다. 물론 그 중심에 차가 있어 그들의 연관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여 더 높은 차원의 정신 세계를 도출한다. 그래서일까 그림 속에 차가 있으면 한층 고즈넉한 분위기가 된다. ㉮



午睡圖

소곤소곤 돌들의 이야기

세중돌박물관

때 이른 봄기운이 돌아 찾아가는 내내 마냥 즐거웠다. 가벼운 마음과 옷차림으로 입구에 내렸을 때 언덕 위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옷깃을 여미고 바라본 풍경, 왜! 하는 감탄사가 절로 흘러 나왔다. 양쪽으로 끝없이 늘어서 있는 수많은 석물들, 저마다 무언의 말을 한 마디씩 하며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세중돌박물관은 2000년에 문을 열었다. 千信一 회장이 남다른 애정으로 20여 년간 수집·보관해 온 석물로 설립한 것이다. 용인시 양지면, 지명처럼 산기슭 양지바른 5천여 평의 넓은 숲 속에 만여 점의 다양한 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 14개 전시관 중 13개가 야외 전시관이다. 자연과 어울려 숨 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전시물은

크게 지킴이·불교·민간 신앙·묘제·생활 용구로 나눈다.

초입에 들어서면 솟대 오리가 다소곳한 몸짓을 하고 돌 마을로 이끈다. 왼쪽의 아담한 언덕에는 수많은 벽수, 문인석, 무인석들이 늘어서 있다. 인간사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희로애락의 언덕'이라 한다. 벽수란 장승의 또 다른 이름인데, 사찰이나 마을 입구에 수문장처럼 버티고 서서 잡귀

를 막아주거나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표정은 험상궂기보다 익살스럽고 수더분하다. 대개 남녀를 상징하는 2기가 마주보거나 나란히 섰는데 크기도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금실 좋은 부부인양 빙그레 웃고 있는가하면 무엇이 불만인지 살짝 토라져 뚱해 보이는 쌍도 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거나, 무언가를 소중히 들고 있다. 사실 눈길이 자꾸 가는 곳은 그 옆의 동자석이다. 머리에 쌍상투를 튼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천진스러운지 보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왕릉과 사대부의 묘역을 지키던 문·무인석의 수가 가장 많다. 이들 石人이 사뭇 근엄해 보이는 것은 묘를 잘 지켜야 되는 소임 때문일까. 문인석은 머리에 복건을 쓰고 손에笏을 들고 있으며, 무인석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있다. 관복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된 뒷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복식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어서 전라·경상·충청도 등에서 온 석물들을 지역별로 모아놓아 비교해보는 재미도 느끼게 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돌하르방이 있는 제



주도관이다. 현무암 동자상은 단순하고 자유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놀랄 만큼 현대적이기도 하다. 키 작은 동자상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 전시관은 영락없는 초등학교 운동장 같다. 선으로 눈과 입을 그어 놓은 게 고작인데 표정은 장난기로 그득하다.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를 웃음을 입 안 가득 참고 있는 듯하다. 대문 대신 집을 지켜준다는 정주목과 정낭도 전시관 입구에 놓여 흥미를 끈다. 정낭을 걸어 놓고 태평스럽게 집을 비운다는 그들이 새삼 부럽게 느껴진다.

언덕을 오르면 또 다른 테마인 불교관으로 이어진다. 여러 형태의 석불과 石獸들이 숲에 둘러싸여 있다. 돌로 된 종이 눈길을 끄는데, 조금은 마모되었으나 9개의 연뢰와 용뉴의 모습이 제법 범종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석종 소리를 시작으로 돌 마을의 아침이 열리지 않을까. 배가 불룩한 石羊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양은 유순해서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피한다고 한다. 불상의 형태만 있는 民佛은 어눌하지만 그래서인지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 옆엔 모진 세월 견디어 내느라 여기 저기 훼손된 석탑이 햇살 아래 덩그러니 서있다. 소나무 숲 사이 석등이 삐죽 보이는 곳은 묘 앞의 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대부의 묘에만 세울 수 있었다는 長明燈은 얼마 전까지 불을

밝힌 듯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다. 봉분 앞에는 망주석·문인석·동자석을 세우는데 숙종 이후에는 동자승만으로 묘를 지키게 했다. 특이한 것으로 동자석 속에 아주 작은 동자가 조각되어 있는데 아들을 낳고 싶은 민간신앙의 한 형태라고 한다.

어릴 때 시골 외가에서 본 맷돌. 재미삼아 해보았지만 빙글빙글 돌리면 옆으로 끈적한 콩물이 흘러나와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돌화로에서 가래떡을 구워주시던 할머니의 마음처럼 돌은 질박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따뜻하고 정겹다. 절구를 찧고, 돌솥 밥을 짓고, 늦은 밤 다듬이 소리까지. 생활 속에서 함께 하면서 사람의 체온이 녹아 든 것이리라.

석공의 정 끝에서 쪼아져 새롭게 태어났을 돌 조각. 다양한 그들의 표정은 인정 넘치는 우리 옛 사람들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온기가 있다. **17절**



옛 돌솥에 새긴 銘

權 鞞 지음 / 曙 山 옮김

계집종이 밭을 파다가 한 덩어리의 물건을 얻었는데 두드리니 땡땡하는 소리가 들리거늘, 흙 붙은 것을 깎고 이끼 자국을 떼어내니 이에 조그만 돌솥이었다. 손잡이가 세 치이고 중간에 두 되 정도가 들어갈 만했다. 모래로 문지르고 물로 씻으니 빛깔이 보기 좋았다. 내 명하여 옆에 두고 차를 끓이고 약 달이는 기구로 쓰게 했다. 다시 그것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우스갯소리로 “솔아! 솔아! 하늘이 돌을 만든 것이 그 몇 년이며, 장인이 쪼아서 그릇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집에 쓰인 것이 또 몇 년이며, 흙 속에 묻혀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쓰이지 못한 것이 몇 년인데, 지금 와서 내 손에 들어 왔구나.” 아! 돌이란 사물 가운데 가장 천하고 우둔한 것이데도 그 나타나고 숨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처럼 많은데, 황차 아주 귀하고 신령스러운 것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드디어 銘을 지어서 그것을 새기니, 얻은 날이 을미 정월 16일이고, 명을 새긴 날이 그달 23일이다. 명에 가로되

“버리면 돌이요, 쓰면 그릇이다.” ㄷ

[古石鐺銘]

女奴於田中掘地. 得一物塊然. 叩之聲硜硜. 剝土痕剔蘚紋. 乃小石鐺也. 柄三寸. 中可受二升許. 沙以磨之. 水以滌之. 光潔可愛. 余命置諸左右. 以供烹茶煮藥之具. 時復摩挲以戲之曰. 鐺乎鐺乎. 與天作石者幾年. 巧匠斲而器之. 爲人家用者又幾年. 埋在土中. 不見用於世者又幾年. 而今爲吾所得. 噫. 石. 物之最賤且頑者. 其隱顯之間. 不能無數也如此. 況最貴最靈者耶. 遂作銘以刻之. 得之日. 乙未正月十六. 銘之日. 其月之二十三. 銘曰. 捨則石. 用則器

권 필(權 鞞)[1569-1612]은 벽(璧)의 아들로 자는 汝章, 호는 石州라 했으니, 鄭澈의 문인이다. 벼슬에 뜻이 없어 시주로 낙을 삼고, 청빈하게 살았지만 문장으로는 이름을 떨쳤다. 광해군 때 이이첨과 외척을 탄핵 비방해서 유배되는 도중에 폭음하고 죽었다. 이 글에는 자신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野 言

申 欽 지음 / 曙 山 옮김

차가 익어 향기 짙어질 때, 문에 객이 이르면 기쁘고, 꽃이 떨어지고 새가 우는데 사람이 없으면 또한 그윽해진다. 참다운 샘물은 맛이 없고, 좋은 물은 냄새가 없다.

좋은 밤 편하게 앉아 등불을 밝히고 차를 달인다. 모든 사물이 조용하고 개울물 소리만 들리는데, 이부자리 깔지 않고 부담 없이 책을 읽는 것이 첫째 즐거움이다. 비바람이 뒤덮이는 날, 문을 닫고 집안을 치운 다음, 책을 앞에 가득히 펼쳐놓고 흥에 따라 뽑아 보는데,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주위가 그윽한 것이 두번째의 즐거움이다. 해 저무는 공산에 가는 눈발이 내리고, 앙상한 가지 바람에 흔들리며 추위에 우는 새 소리 들리는데, 방 안 화로 가에서 술은 익고 차 향기 풍기는 것이 세번째 즐거움이다. [야언은 전원에 오래 살다보니 이미 세상 밖의 사람이 되었다. 어느 때 지난 날 적었던 것을 보다가 마음에 맞는 것들을 작은 책으로 묶어, 사이사이에 내 뜻을 붙이고 야언이라 이름했다. 이것들은 실제 나의 자취이고 그 말들은 야인의 말이지만 더불어 얘기해 볼만한 것들이다.]

茶熟香清. 有客到門可喜. 鳥啼花落. 無人亦自悠然. 真源無味. 眞水無香.

良宵宴坐. 篝燈煮茗. 萬籟俱寂. 溪水自韻. 衾枕不御. 簡編乍親. 一樂也. 風雨載途. 掩關去掃. 圖史滿前. 隨興抽檢. 絕人往還. 境幽室寂. 二樂也. 空山歲晏. 密雪微霰. 枯條振風. 寒禽號野. 一室擁爐. 茗香酒熟. 三樂也. [野言; 田居歲久. 已作世外人. 適披前修著撰. 有會心者. 錄爲小帙. 間附己意. 名以野言. 迹其實也. 其言宜於野. 可與野人言也]

신 흥(申 欽)[1566-1628]은 학자로 자는 敬叔, 호는 象村 혹은 玄軒이니 개성 사람이다.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병조판서를 지내고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인조반정 후에 이조판서, 영의정을 역임했다. 정주학자로 한학 4대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차를 아주 즐겨 마시고 茶詩도 많이 남겼으니, 후손들 중에도 차인이 많았다.

梅花雜念

1. 겨울답지 않은 겨울을 보냈는데도 어김없이 구지봉의 매화는 꽃망울을 터트립니다. 이맘때면 늘 초조하고 애뜻합니다. 행여 꽃샘이 닥쳐 이미 망울을 터트린 약한 꽃잎을 해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첫째요, 마치 여인네 젓꼭지 같은 망울을 며칠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둘째입니다. 아침마다 이슬 먹은 꽃잎에 안부를 묻습니다. 점심나절에는 번덕 심한 날씨에 다치지나 않았는지 궁금하여 발길이 그리로 향합니다. 눈 속에서도 피는 '雪中梅' 요 사군자의 으뜸인데 그까짓 연약한 봄바람을 걱정하는 것은杞憂임을 이내 알겠습니다. 뒷집 지고 주위를 걸어 봅니다. 梅香은 원래 날리는 것이 제멋이라고 언젠가부터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콧등을 들이대고, 렌즈로 초점도 맞춥니다. 결국은 꽃잎을 따서 잔에다 띄우고는 향을 음미합니다. 봄의 시작에 즐기는 사치입니다. 욕심임을 이내 알겠습니다.

君自故鄉來(군자고향래) 그대 고향에서 오셨으니,
應知故鄉事(응지고향사) 응당 고향소식을 잘 아시겠군요.
來日綺窓前(내일기창전) 떠나오시던 날 우리 집 창문 앞,
寒梅著花末(한매착화미) 매화나무 꽃망울 아직이던가요.

王維의 시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전원을 읊던 그였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모양입니다. 매화를 핑계로 고향에 대한 애뜻함을 점잖

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애뜻함이야 그에게 비할바 아니지만, 갈수록 각박하고 바쁜 나날들 속에 꽃봉오리라도 붙잡아 두고 싶은 간절함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자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2. 새 지폐의 도안에 대해 말썽이 많습니다. 만 원짜리 종이돈의 혼천의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며, 혼천시계의 일부만 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망원경도 세계 5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소형으로 그나마 외국에서 사온 것이라고 합니다. 오천 원짜리 종이돈의 草蟲圖 중에서 수박은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도안에는 그 나라의 상징적인 것이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유래가 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사온 것이든 간에 국민정서에 맞고 전통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천 원짜리 종이돈의 앞면에는 성균관 건물이 배경으로 깔리고 퇴계 선생의 초상과 매화가 도안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겸재의 溪上靜居圖가 들어 있습니다. 후대에 지은 도산서원을 빼고 성균관을 넣은 것은 대사성을 지낸 이력을 더 중요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고을을 다스릴 만한 벼슬에만 머물라고 하신 어머니의 뜻에 따라 여러 번 관직을 고사한 선생의 효심과 학문연구에 몰두한 것을 고려하면, 큰 벼슬 한 것을 강조한 것도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계상정거도의 서당도

도산서당인지 산 너머 있는 계상서당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도산서원과 많이 닮았습니다만 안동댐이 만들어지기 전의 도산서당과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매화가 들어간 것은 퇴계 선생이 평소 매화를 너무도 사랑한 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만, 그 많은 매화도 다 두고 간략화 한 매화를 넣은 것도 어색합니다.

잠시 퇴계 선생의 매화 사랑 일화를 옮겨 봅니다. 선생이 돌아가시기 몇 일전, 갑자기 설사를 하셨습니다. 마침 매화 화분이 옆에 있었는데, 병구완을 하던 제자에게 화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梅兄에게 불결하니, 마음이 절로 미안하구나.” 돌아가시던 날도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혼미한 속에서도 매화에 물주는 것을 잊지 않을 만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일백 수가 넘는 매화 시를 짓기도 하셨습니다.

3. 처음 박물관에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누군가가 불쑥 전시실 유물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의 머그잔을 꼭 닮은 컵형토기를 지목하였습니다. 주로 가야 유적에서 4세기대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원통 모양의 몸통에 큰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도톰한 몸통은 아직 가야토기의 곡선미를 보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밍지 않습니다. 심플하다고나 할까요. 그 매력에 이끌림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5세기가 되면 가야의 잔들은 몸통도 둥글어지고 두께도 얇아져 더 세련됩니다. 굽다리가



불기도 하고, 손잡이는 작아져 고사리모양으로 치장되기도 합니다. 짐승의 뿔 모양을 본 떠 뿔잔(角杯)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작은 받침에 올라앉아 앙증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애주가들은 은근히 술잔이라고 하지만, 一適不飲인 나는 몇 해 전부터 이 잔에다 매화차를 한 번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고고한 매화의 자태와는 어울리지 않을 듯도 하지만, 500cc는 뒹직하니 술보다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일찍이 임어당은 ‘혼자서 차를 마시면 離俗이라 하였지만, 나는 건방지게도 매화를 닮고 싶어 매화차를 마셔볼 작정입니다. 좀 더 솔직하면, 많은 일과 바쁜 날들 속에서 잠시 벗어나 주위의 꽃들에게도 눈길을 주는 여유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른 봄 분에 넘치는 사치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매화차와 가야토기처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잡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화차를 일러주신 정순애님의 빠른 완쾌를 빕니다. 

丁亥早春, 雲門

미얀마,

황금보다 찬란한 佛心の 나라

이 수 경 | 회원

사실 처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다. 미얀마 하면 왠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아웅산 테러사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 답사를 갈 만큼 볼거리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박물관 강좌 선배들의 권유와 협박(?)에 떠밀려 여행을 신청했다. 마침 TV에서 미얀마 바간 지역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더니 차츰 우려가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우리에게 랭군이라는 영국식 이름으로 알려진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도착하자 이미 날은 어두웠다. 다음날 새벽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바간지역으로 이동했다. 바간에서는 어디를 가나 탑들과 마주치게 된다. 깊은 산 속의 사찰에서나 보던 탑을 도처에서 만나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맨발로 사원을 둘러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망설이며 조심조심 내딛던 발걸음이 며칠 지나자 익숙해지더니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좋아지기까지 했다.

바간에서 처음 찾은 사원은 황금탑으로 유명한 쉐지곤이다. 규모는 작지만 부처님의 치아와 앞이마뼈 사리를 모신 사원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사원 중 하나로 손꼽힌다. 벽돌 외관이 돋보이는 텔로민로사원의 내부회랑을 돌아보고, 백미라고 자랑하는 아난다사원으로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미얀마의 파고다는 구운 벽돌로 쌓은 뒤 외관을 흰색의 치장벽토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치장벽토는 현재 일부만 남아있고 붉은 벽돌이 대부분이다. 1113년에 지어진 꾸바옥지파고다는 벽화 [프레스코화]로 유명하다. 그들은 유럽과 달리 회반죽이 마른 후에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복원된 벽화는 12세기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다. 문득 돈황석굴이 오버랩 되면서 이곳과 돈황 사람들의 불심이 통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쉐산도사원에 올라가 일몰을 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무어라 표현해야 할까! 시인이 라면 그 느낌을 글로 잘 옮겼을 텐데. 붉게 타오르는 바간의 넓은 평원, 현세에서 공덕을 쌓아 내세의 복을 바라는 미얀마인들의 지극한 불심이 내게도 전해졌다.

바간에서의 이틀은 정말 바쁘게 지나갔다. 이곳은 수식어가 유난히 많이 따라다닌다. 미얀마 최대 통일왕국의 수도, 최대의 불교성지, 세계 3대 불교유적지,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등이다. 하지



만 나는 '탑의 도시'라는 별명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1975년의 강력한 지진에도 탑들은 끄떡없었다니 별명이 무색하지 않다.

두번째 답사지역인 만달레이로 이동했다. 놀라운 규모를 자랑하는 꾸도도파고다를 방문했는데 729개의 돌로 만든 장경을 각각의 탑에 안치해 놓았다. 하얀 작은 탑들이 일렬로 늘어서 장관을 이룬다. 아침 일찍 마한간디웅수도원에서 본 스님들의 아침공양도 인상적이었다. 붉은 옷을 입은 스님들이 신자들과 어울려 특이한 광경을 연출한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든 많은 파고다에 지칠 무렵,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다는 인레호수에서의 하룻밤은 달콤한 휴식과 같았다. 햇볕이 짙은 오후에 최근 발굴된 인땡유적지를 찾았다. 복원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시멘트를 덧바른 탑은 흉하게 보였다. 왠지 마음이 언짢아졌다. 완벽한 복원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느덧 여행도 막바지에 들어 다시 양곤으로 돌아왔다. 이곳 파고다들은 비교적 최근의 것과 거대한 불상들이 많다. 1927년에 완성된 차욱탓지



파고다에는 67미터의 와불이 있고, 로카찬다파고다의 좌불상은 600톤짜리 옥으로 만들어졌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다. 거바예파고다의 부처님은 신자들이 하도 개금을 해서 형태를 알아보기도 힘들다. 마치 거대한 눈사람 같다. 양곤의 상징은 쉐다곤파고다이다. 사원의 규모면에서나 황금대탑의 아름다움으로 보나 손색이 없다. 그러나 황금과 보석은 불빛을 받으면 더욱 찬란해져 낮의 쉐다곤은 밤의 화려함을 이길 수 없다.

파고다를 거닐거나 계단이나 광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곳은 사원이 아니라 쉼터인 것 같다. 불교가 곧 생활인 이들의 불심은 황금대탑보다 더 빛나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데 사람들의 얼굴은 평화롭다. 미얀마는 우리 대다수에게는 미지의 땅이다. 이제 막 붐이 일기 시작했으나 충분히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될 것이다. 미얀마인의 불심처럼 아름다운 유적지도 잘 보존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들의 소박하고 예쁜 미소를 떠올려 본다. 

젊은 그들 박연회

박물관 특설강좌 6기, 까마득한 고참 선배들이 모여 판을 벌렸다. 博研會 결성 25주년을 기념하는 자축 잔치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내의 거울못 카페는 이들이 뿜어내는 훈기로 가득하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회원들의 표정이 밝고 눈빛이 살아있다.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원들 모두가 멋쟁이이다. 연말 모임이니 한껏 차려입었으나 화려함 보다는 은근한 멋을 풍긴다. 이런 감각 덕분인지 이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나이에 비해 참 젊다. 요즘 뜨고 있는 童顏인 셈이다.

“그때 여러분은 정말 예쁘고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오늘 잔치에 와서 보고 또다시 좀 놀랐습니다. 여전히 예쁘긴 한데 어찌 그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곰곰 생각해 보았지요. 비결이 뭘까 하고요. 늘 한국의 아름다움과 함께한 세월 덕분인 듯합니다. 최선을 다해 美를 추구한 결과이지요”

특설강좌 수료후 첫 박연회 강의를 맡았던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축하 인사로 한 말이다. 누구라도 수공할 만큼 그들은 젊어 보인다.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밝힌 비법은 의외로 평범하다. 공부가 재미있어서 모였고 만나다 보니 늘 즐거웠단다. 혈연도 어린시절의 학연도 없지만 전통문화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공통분모가 마음을 묶어주었다. 그간 개설된 강의과목을 보면 이들의 내공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동서양의 역사와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강좌는 물론 한국미술은 복식사, 석조미술, 자수, 종교사상, 불교미술, 금속공예, 민속 등 세세한 분야까지 일년씩 할애했다. 강사진에 이르면 부러움을 넘어 약간의 질투심이 생길 지경이다. 전문분야에서 당대의 유명강사뿐 아니라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분까지 실로 화려하다.

우리 문화에 대해 적당히 두루 섭렵만 한 것도 아니다. 이들의 영원한 애정은 우리 도자기이다. 첫 스터디그룹의 도자사 강의를 시작으로 도자미술사, 한국 도자기, 한국도자의 세계, 2006년의 中·日 도자사까지 강사를 바꿔가며 무려 5년을 연구했다. 이 정도이면 웬만한 박사

학위 과정을 능가한다. 우리나라 박물관 탐방은 물론이고 陶窯地 순례에 중국과 일본의 도자 박물관으로 해외답사까지 감행했다.

같은 취미를 가졌다고 모든 모임이 오래가



지는 않는다. 운영의 묘가 있어야 가능하다. 마흔여명의 회원 중에는 창립 멤버가 대부분이지만 나중에 합류한 사람도 있다. 남자 회원도 의외로 많다. 서로 불러들인 동창이나 친척관계인 새내기 회원도 제법 있다. 튼실한 운영에는 깔끔한 돈 관리도 한몫을 한다. 그해 거둔 회비는 해당년도 집행이 박연회의 원칙이다. 1년 단위의 투명경영 덕분에 앙금이 생길 틈이 없다.

오늘의 박연회가 있기까지 유상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장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초대회장이면서 실질적인 모임의 구심점이다. 최고 경영자라는 바쁜 일과 중에서도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97년부터는 코리아나화장품 강의실을 박연회 공부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안목과 소양을 넓히기 위해 특설 강좌에 등록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을 뿐입니다. 박연회 강의 덕분에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고 있지요. 특히 화장품 用器의 디자인을 선택할 때는 우리 전통 도자기로 판단 기준을 매기곤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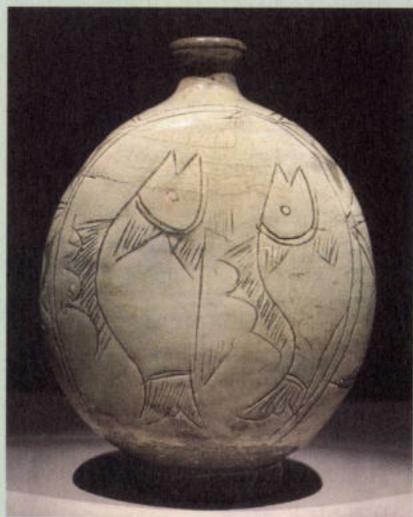
잘 되는 모임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분위기는 그야말로 ‘시종일관 화기애애’ 하다. 활달한 안영경 회장과 신미자 총무의 꼼꼼한 일처리도 만남을 즐겁게 한다. 잔치비용도 거의가 찬조금이고 테이블 위에는 회원들이 갖고 온 화장품이며 쿠키, 향수, 책, 관람 티켓, 수공예품 등 선물이 그득하다. 25년을 개근한 7명의 회원에게는 은수저가 부상이다. 회원과 축하차 참가한 몇분의 강사들, 모두가 숨은 공로자이다. 아낌없는 박수와 노래도 빠지지 않는다. 즐겁게 한곳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 그들이 젊게 사는 비결이다. 河

숨쉬는 자유를 꿈꾸는 물고기

정 은 정 | 회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즐비하다. 때로는 그 기준마저도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세련미를 오래 접하다 보면 어느새 이름 모를 풀 한포기가 그리워진다. 내게 있어 분청사기는 그 풀 한포기의 그리움이다.

장자는 한가롭게 노니는 물고기의 유려한 곡선과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며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런 모습이라고 느꼈다. 만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만물이 하나임을 아는 사람만이 옳고 그림, 선악과 생사를 초월하여 무한한 자유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 그의 사상은 존재하는 미물로부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열려있는 마음이 다. 장자의 열린 마음을 통해 세상의 본래 모

습을 바라보게 하는 유물이 우리에게도 있다. 조선 전기의 유물 분청사기이다. 이를 통해 자연미와 한국미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살펴보고, 그와 전통을 같이하는 문화재도 찾아 보고자 한다.

「粉靑沙器彫花물고기무늬扁瓶」과 「粉靑沙器剝地彫花물고기무늬장군」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보면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편병의 물고기는 자유를 꿈꾸는 듯 생동감이 넘친다. 명랑하고 발랄해 보이는 장군 물고기의 몸짓은 지느러미의 힘찬 움직임에서 물결을 헤치며 노는 꾸밈없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엿보인다.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반가운 마음과 익살스런 생각이 앞선다. 물고기는 옛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했던 먹거리로 생명을 상징하고 건강을 의미했다. 그래서인지 모양을 본떠 만든 한자 중에서 가장 처음에 자리하는 글자가 물고기 魚라고 한다. 중국어에서는 남을 餘와 발음이 같아 같이 쓰이고 있다. 여지를 주는 여유와, 넉넉함을 상징하는 물고기는 풍요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자물쇠 모양으로 사용되었나보다.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 부지런한 모습과 나쁜 것에 대한 경계심

도 함께 담았을 것이다. 조화기법은 물고기의 날렵한 몸짓을 잘 표현해 준다.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조잡한 면도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아 정겹다. 물고기의 살아 숨 쉬는 자유 너머엔 도자기 전체를 관통하는 투박하고 수더분한 맛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평생을 자기소에 예속된 사기 장인들은 한 가족 단위로 딸감, 물, 흙이 나는 내륙 지방의 산이나 계곡에 자리



를 잡았다. 위대한 장인의 꿈을 체념한 채 욕심 없이 자연과 일체되는 삶을 꾸려나갔다. 그들의 자유로움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청자의 상감이나 인화기법보다 조화·박지·덤병·철화·귀얄기법 속에 물처럼 바람처럼 무심한 듯 한 개성이 더 잘 나타나있다. 구수한 큰 맛으로 대표되는 한국미의 특징을 가장 잘 간직하여 현대 미술에서도 주목받는 것 같다.

분청사기는 민화와 더불어 현대 미술에서 재인식이 필요하다. 민화는 그 자체의 존재감은 크지 않으나 생활 속에 들어와 호흡을 같이 하며 끝없는 평온을 제공하였다. 외풍을 막기 위해 도배한 장지 위에 상징적인 표현으로 염원을 담고 그려서, 무대의 배경 그림처럼 행사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했다. 없는 듯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며 생활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다. 열려진 세계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자유를 선사한다는 점에서 분청사기와 닮았다. 기교를 부리지 않은 듯 하나 기교가 보

이고 꾸밈없이 소박하나 손에 잡히지 않는 여유를 구가하는 분청사기와 민화는 전통과 현대의 멋을 갖춘 벗이라 하고 싶다. 또한 조선 후기 판소리와도 그 정신이 닿아 있다. 판소리 명창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더늠은 장인의 솜씨와 맥을 같이 한다. 구경꾼을 울고 웃게 하는 발림(너름새)의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맵시는 개성 있고 추상화된 분청의 문양을 연상시킨다. 분청사기, 민화, 판소리의 생동감은 창조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친근하고 편안한 한국적 정서의 소통을 알려준다.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가진 농경민족의 활발한 움직임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세련미 이전의 원초적인 안락함인 것이다.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배우가 분장을 하는 행위는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분청사기도 그런 면에서 인간의 소망을 담아내는 도자기인 것이다. 냉정하고 깔끔한 현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편안함을 덤병 선사하는 농익은 그리움이다. ㄹ

5~6세기 新羅 裝身玉 2例의 檢討

-裝身玉의 種類, 製作技法, 淵源을 中心으로-

俞炳夏 | 국립춘천박물관

I. 머리말 : 裝身玉에 대한 考古學的 接近

5~6세기 신라의 裝身玉에 대한 연구는 考古學的으로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1921년 金冠塚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왔고, 이를 통해서 수십만 점의 구슬이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조사된 유물의 간략한 紹介와 自然科學的인 分析에 그쳤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裝身玉의 分類나 製作技法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裝身玉에 대해서는 製作技法과 系統 혹은 淵源을 파악하는 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事例가 象嵌玉과 人面玉이다. 그러나 면밀한 觀察을 통한 分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誤謬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1단계의 작업으로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온 瑞鳳塚과 味鄒王陵 C地區 4號墳에서 출토된 裝身玉 2例를 상세하게 檢討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위의 두 古墳에서 출토된 裝身玉은 다종다양한 구슬이 一括로 결합된 것으로서, 5~6세기 신라의 구슬을 種類別로 파악하고 상이한 製作技法을 살펴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裝身玉을 구성하는 개별 구슬의 多樣性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生産과 流通의 淵

源이 서로 다른 구슬이 一括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었던 5~6세기 新羅文化의 복잡한 면모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II. 裝身玉의 種類

1. 瑞鳳塚

두 개의 개별 積石木槨墳이 남북으로 連接된 瓢形墳이다. 그중에 北墳이 瑞鳳塚으로 封墳의 규모가 지름 36m, 높이 9.6m에 이른다. 内部構造로는 동서 373cm, 남북 195cm 규모의 土壇 안에 木棺이 安置된 후, 둘레에 積石과 木槨이 架構되고 그 상부에 다시 積石된 것이다. 그리고 木棺의 내부에는 屍身에 着裝된 상태로 金冠·太銀垂飾·金製鈎帶·琉璃製腕釧·金製指輪·頸飾·胸飾·金製耳飾 등이 부장되었다. 그 중에서 裝身玉은 5條의 琉璃製 구슬로 된 頸飾과 水晶·瑪瑙製의 여러 구슬이 결합된 頸飾의 2종류가 頭部에서 腰部에 걸쳐 부장되어 있었고, 金製指輪 가까이 오른손 부위에도 琉璃製의 丸玉과 硬玉製 曲玉이 群을 이루며 부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위의 裝身玉 중에서 본고의 검토대상은 모두 21점의 개별 구슬이 결합된 것이다. 즉 琉璃製 象嵌玉·丸玉 3점과 水晶製의 曲玉·多面玉 6점, 瑪瑙製의 曲玉·管玉·多面玉·丸玉 8점, 炭木製 平玉 3점, 硬玉製 曲玉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味鄒王陵地區 C地區 4號墳

主·部槨이 竝列된 積石木槨墳이다. 조사 당시에 이미 封墳과 積石의 일부는 파괴되어 있었으므로 護石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主槨은 동서 380cm, 남북 220cm 규모의 土壙 바닥에 먼저 川石·자갈·점토로 만든 墓床이 설치되고, 그 위에 木槨이 安置되었다. 副槨은 동서 200cm, 남북 200cm 규모의 土壙일 뿐이다. 木槨이 安置된 후에는 둘레와 상부에 木槨이 架構되고, 積石이 더해졌으며, 그 상부는 점토로 단단히 밀봉되었다.

頸飾으로 사용된 裝身玉은 東枕된 被葬者가 胸部에 着裝한 상태로 부장되었다. 구체적으로는 頸部에서 胸部에 걸쳐 둥근 형태(輪形)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하단 가운데에 瑪瑙製 曲玉 1점이 놓여 있었다. 세부 결합상태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래쪽 가운데에서부터 瑪瑙製 曲玉 1점, 水晶製 棗玉 1점, 琉璃製 人面玉 1점, 碧玉製 管玉 1점 및 瑪瑙製 多面玉·丸玉 16점(多面玉 6, 丸玉 10), 琉璃製 丸玉 28점(藍色 24, 綠色 4)의 순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Ⅲ. 裝身玉의 製作技法

먼저 琉璃製 象嵌玉은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는 鐵線에 剝離劑를 바른 후, 먼저 노란 색유리를 녹인 유리액을 감아준다. 다음에 녹인 藍色 유리액을 같은 방식으로 감아서 구슬 1점의 형태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점성이 남아있는 구슬의 바탕 素材에 노란 색유리를 녹여 棒처럼 붙여 늘인 후, 끝을 적당히 자르고 도구를 사용하여 눌러서 嵌入한다. 이 과정에서 깊게 象嵌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뾰족한 도구를 써서 끝을 눌러 주기 때문에 대체로 노란 반점 무늬의 가운데에 점처럼 찍힌 자국이 남게 된다.

琉璃製 人面玉은 위의 象嵌玉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草花·오리·人面의 개별 문양을 赤·黃·靑·白色의 색유리를 사용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 종류의 색유리에 열을 가하면서 겹쳐 말아 최종적으로 斷面에 草花·오리·人面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 작업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얇게 잘라서 매우 작은 개별 紋樣板을 준비하는 것으로 1단계의 작업이 끝난다. 그 다음에는 象嵌玉을 만들 때처럼 藍色 유리액을 가는 鐵線에 감고, 약간의 점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표면에 紋樣板을 모자이크 식으로 계속 붙여 나간다. 이 작업을 마치면 다시 열기를 가하여 表面張力 때문에 매끄러운 표면을 갖게 만든다.

琉璃製 丸玉은 위의 象嵌玉과 人面玉에 사용된 製作技法의 기본이 적용된 것이다. 즉 가는 鐵線에 剝離劑를 바르고 軟藍色·軟綠色·軟褐色의 유리액을 감은 후 식히는 과정에서 도구로 일정 간격마다 눌러준다. 그런 다음 완전히 식으면 鐵線에서 빼내고 개별 구슬을 분리한 후, 최종적으로 분리된 부위를 잘 다듬어 완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량 생산된 琉璃製 丸玉은 일정한 規格性을 갖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瑞鳳塚과 味鄒王陵 C地區 4號墳에서 출토된 琉璃製 丸玉은 그러한 양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리 제작된 여러 종류의 丸玉 중에서 크기와 색상을 감안하여 選別的으로 특징의 丸玉을 결합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水晶製의 曲玉·多面玉·囊玉은 제 각기 형태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제작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이다. 예컨대 미리 준비된 原石에서 필요한 크기만큼의 재료를 떼어내고 도구로 여러 차례 형태를 다듬는다. 어느 정도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는 한쪽 방향에서 구멍을 뚫고, 솥돌에 鍊磨劑 혹은 물을 부어서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양쪽 방향에서 구멍을 뚫어 주기도 하는데, 이는 재료의 硬度나 구슬의 길이에 달려 있다. 위와 같은 제작과정은 재료가 瑪瑙·琥珀·碧玉·硬玉·炭木 등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이다. 즉 구슬의 材料와 種類가 무엇이든지 간에 微細工程에서만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같은 技法을 사용하여 만든다.

IV. 裝身玉의 淵源

맨 먼저 琉璃製 象嵌玉부터 살펴보자. 이것은 지금까지 한반도내에서 신라영역 이외에는 출토된 적이 없다. 오직 신라의 중심이었던 慶州와 주변의 梁山에서만 출토되었을 뿐이다. 즉 慶州 皇南大塚(北墳)·天馬塚·瑞鳳塚·金冠塚·金鈴塚·飾履塚·壺衿塚와 梁山 金鳥塚에서만 출토되었다. 그런데 이미 B.C.7~5세기 무렵부터 裝身의 수단으로 구슬을 사용했던 중국과 북방지역, 그리고 B.C.2세기 무렵부터 다양한 裝身玉을 사용했던 한반도 西北部地域에서도 신라에서와 같은 象嵌玉을 사용한 사례가 전혀 없다. 또한 5~7세기의 고구려나 백제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象嵌玉은 한반도 내에서 신라인이 發明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琉璃製 人面玉은 오직 味鄒王陵 C地區 4號墳에서만 출토되었다. 동북아시아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지금까지 出土事例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裝身玉에 비해서 生産·流通의 淵源을 추적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이지만 최근에 단서가 될만한 것이 인도네시아의 자와(Jawa)섬에서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人面玉은 藍色 바탕에 모자이크 방식으로 오리가 촘촘히 새겨진 것이다. 특히 紋樣은 赤·靑·白色의 색유리를 組合하여 만든 것으로, 신라의 것과 형태가 같고 눈·날개·다리의 표현기법과 색상까지 똑같다. 게다가 거의 같은 크기이며, 제작된 시점도 5~6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신라의 人面玉은 인도네시아의 것이 그대로 건너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琉璃製 丸玉은 象嵌玉·人面玉과는 달리 이미 紀元 前後한 시기부터 製作·使用되어 한반도 中南部地域의 貝塚·古墳·住居地·低濕地 등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B.C.1~A.D.1세기에 해당되는 泗川 勒島·昌原 茶戶里·海南 郡谷里·光州 新昌洞 遺蹟에서 出土되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출토된 琉璃製 丸玉의 淵源을 추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작업에 속한다. 왜냐하면 구슬의 外形의 차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납(lead)·포타쉬(potash)·소다(soda) 유리로 分類되는 化學的인 組成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中南部地域의 琉璃製 丸玉이 처음부터 어떤 지역의 技術的인 영향을 받아서 제작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西北部地域에서 활발하게 製作·使用되었던 琉璃製 丸玉의 영향을 받았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곳에는 이미 B.C.2

세기부터 漢의 郡縣이었던 樂浪과 土着勢力이 혼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삶을 영위했던 흔적 곳곳에서 琉璃製 丸玉을 비롯하여 한반도 中南部地域에서 크게 유행했던 裝身玉 문화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한반도 中南部地域에서 성행하기 시작한 琉璃製 丸玉은 A.D.2~3세기경에 이르러 다른 裝身玉과 함께 기술적인 진보를 이룩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製作·使用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水晶·瑪瑙·琥珀·炭木製의 丸玉·多面玉·棗玉·管玉·平玉 등의 裝身玉도 한반도 中南部地域의 고분에 널리 副葬되었다.

그런데 신라의 裝身玉 중에는 앞서 언급한 한반도 西北部地域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다. 즉 琉璃·琥珀·硬玉製의 曲玉과 碧玉製의 두툼하게 생긴 管玉으로 한반도 中南部地域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따라서 그 淵源을 한반도 中南部地域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위의 지역에서는 碧玉·天河石製의 曲玉과 碧玉製 管玉이 靑銅器時代부터 활발하게 제작·사용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裝身 전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西北部地域으로부터 새로운 裝身玉 문화가 유입되자, 中南部地域에서도 A.D.2~3세기부터 琉璃·琥珀·瑪瑙·碧玉·硬玉製의 曲玉과 碧玉製 管玉이 활발하게 製作·使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V. 맺음말 : 裝身玉의 多樣성과 그 意味

瑞鳳塚과 味鄒王陵 C地區 4號墳에서 출토된 裝身玉은 수십 개의 구슬이 하나의 용도로 결합하여 사용된 것으로, 개별 구슬의 種類와 製作技法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종류로는 琉璃·水晶·琥珀·瑪瑙·碧玉·硬玉·炭木으로

만든 象嵌玉·人面玉·丸玉·曲玉·多面玉·管玉·棗玉·平玉이 있었다. 製作技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琉璃製 象嵌玉은 구슬의 바탕 素材에 색유리 棒을 박아서 紋樣을 낸 것이며, 人面玉은 미리 색유리로 만들어 놓은 紋樣板을 구슬 표면에 모자이크 방식으로 계속 붙이고 최종적으로 表面을 매끄럽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琉璃製 丸玉은 鐵線에 유리액을 묻힌 후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도구로 잘게 나누어 分離·磨研하여 만든 것이다. 그 외에 丸玉·曲玉·多面玉·管玉·棗玉·平玉은 여러 종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水晶·琥珀·瑪瑙·碧玉·硬玉·炭木의 原材料를 사용하여 거칠게 형태를 다듬어 낸 후 穿孔을 하고 최종적으로 숫돌에 磨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종류별로 製作技法이 다양한 개별 구슬은 生産·流通상의 淵源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즉 琉璃製 象嵌玉은 신라인의 發明品으로 일본까지 전해졌으며, 人面玉은 인도네시아에서 海路를 이용하여 신라로 流入되었던 것이다. 나머지 琉璃製 丸玉, 水晶·琥珀·瑪瑙·炭木製의 丸玉·多面玉·棗玉·管玉·平玉은 B.C.1세기 이후부터 한반도 西北部地域으로부터 새로운 裝身文化가 傳來된 이후, 한반도 中南部地域에서 오랫동안 製作·使用되어 오던 傳統이 A.D.2~3세기의 革新的인 發展過程을 거치면서 신라의 裝身玉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한편 水晶·瑪瑙·琥珀·碧玉·硬玉製의 曲玉과 碧玉製의 管玉은 그보다 오랜 靑銅器時代부터 제작되어 오던 것이 한반도 西北部地域의 裝身玉 문화가 中南部地域으로 들어와 성행할 무렵에 함께 발전하였고, 결국에는 신라 裝身玉의 일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淵源을 가진 개별 구슬을 신라의 匠人들이 특유의 용도에 맞는 一括 裝身玉으로 꾸며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考古學的으로 示唆해 주는 바가 크다. 즉 5~6세기의 新羅文化를 考古學 資料로 복원해 나갈 때, 다양한 갈래의 文化傳統이 지속되면서 이룩한 內的인 發展과

새로운 文化要素의 流入, 이를 토대로 한 創造的인 發明을 동시에 罫두에 두고 複合的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實證的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㉓

● 심사평 ●

이 글은 서봉총과 미추왕릉 C지구 4호분에서 출토된 일괄 장신옥의 종류, 제작기법과 생산·유통상의 연원을 살핀 연구논문이다. 상기 장신옥은 유리, 수정, 호박, 마노, 관옥, 경옥과 탄목으로 만든 상감옥, 인면옥, 환옥, 곡옥, 다면옥, 관옥, 대추옥, 평옥으로 구성된 여러 종류의 개별 구슬이 결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글을 추천한 이유는 1)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5~6세기 신라 장신옥에 대한 기초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2) 일괄로 결합된 구슬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관찰을 통하여 그 종류와 제작기법을 고찰하였으며, 3) 유리제 인면옥의 동남아시아와의 관련성을 추적하여 신라문화의 국제성을 확인하였으며, 4) 각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외 관련 논문들을 섭렵하여 장신옥의 종류별 출자를 밝혀낸 노력을 높이 사서이다.

사실 고고학분야의 심사대상 후보 논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논문은 여기에 선정된 논문이 아니다. 두 심사자가 서로 다른 논문에 최고 점수를 주었고 결국 합산된 점수에 후보자의 경력을 감안하여 운 좋게 선정되었을 뿐이다. 박물관 연구의 기본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물질자료의 치밀한 관찰과 분석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는 전시와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원학술논문집에 수록된 다른 고고학분야 심사대상 논문도 박물관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왜곡되거나 모르고 있었을 역사의 단편들을 살려내고 있어 상기 논문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본다. 선사고고학 분야의 일부 논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일 단일 논문만 평가하지 않고 종합적인 학술 실적을 평가하였다면 다른 후보자가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더욱 수준 높은 논문이 넘쳐나리라 기대해 본다.

안승모 (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신라 고고학에 있어 고분이나 금동제품 등에 비해 연구가 부진했던 장식옥에 대해 서봉총과 미추왕릉 C지구 4호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작기법을 파악하고 그 연원을 밝히고자 한 논문이다.

제작기법에 있어서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되는데, 유리제 상감옥은 바탕이 되는 구슬 표면에 색유리를 박아 문양을 내었고, 인면옥은 구슬 표면에 색유리 문양판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붙였으며, 환옥은 철선에 유리액을 묻힌 후 잘게 나누었고, 나머지는 수정, 호박, 마노 등의 원재료를 마연가공한 것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연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유리제 상감옥은 신라에서 기원하여 일본으로 전해졌고, 인면옥은 인도네시아를 거쳐 신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는 청동기시대부터 발전해 온 것이거나 기원전 1세기경에 서북한 지역에 중심을 두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감옥의 신라 기원론과 인면옥의 인도네시아 경유론은 이 논문의 핵심이자 신라 장식옥에 대한 꼼꼼한 관찰과 문제 인식에서 이룩한 연구 성과로서 5-6세기대 신라의 독창적이면서도 국제적인 면모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영진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회원예우 및 혜택

회원 구분	회비	예우 및 혜택		
		회원 예우	박물관 혜택	
일반 회원	오만원	사회교육 및 고적답사 참여 학술강연회 및 발표회 참여 '박물관사람들' 회지 배포 회원예우 기간 : 1년	국립중앙 및 지방 국립박물관 상설전시실 무료관람 박물관신문 배포 박물관혜택 기간 : 1년	
특별 회원	칠십만원	일반회원 예우 및 연 회비 면제 국외답사 참여 회원예우 : 평생	일반회원 혜택 및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점, 식음료장, 극장 용 이용 할인 (박물관 직원과 동일한 할인요율 적용) 박물관혜택 : 15년	
기부 회원	수정	이백만원	특별회원 예우 및 회비누적 및 기부금 공제 특별관람회 초대	특별회원 혜택 및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무료이용 박물관혜택 : 평생
	백자	오백만원	수정회원 예우 및 '박물관사람들' 에 명단게재 사회교육 수강료 할인	수정회원 혜택 및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초대
	청자	일천만원	백자회원 예우 및 부부 회원예우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배포	백자회원 혜택 및 중요인사 특별안내
	은관	삼천만원	청자회원 예우 및 평의원에 준하는 예우 사회교육 수강료 면제	청자회원 혜택 및 후원인 명판설치
	금관	오천만원	은관회원 예우 및 임원에 준하는 예우 '박물관사람들' 에 소개 '박물관사람들' 에 이미지홍보(법인)	은관회원 혜택 및 국립중앙박물관 시설이용 (협의) 박물관혜택 : 3년 (법인)
	천마	일억원	금관회원 예우 및 회원가입 이벤트	금관회원 혜택 및 국립중앙 및 지방 국립박물관 시설이용 (협의) 박물관혜택 : 5년 (법인)

후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유물기증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벼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열장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로버트 세이어의 일본제국과 한국왕국의 지도
 청주군지도
 위창 오세창 와전문 서예전각 10폭 병풍
 위창 오세창 상형고문
 기원 유한지 예서
 소정 변관식 백남8폭 병풍 등을 구입 기증했다.

■ 학술연구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제정하여 박물관의 연구활동을 돕는다.

■ 사업지원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발굴조사 등을 지원한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목·금요반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을 진행한다.

■ 연구강좌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하였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미술사·세계문화A, B 등 8개 강좌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약 1,4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1975년부터 시작해 35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외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국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 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 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자원봉사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실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李大源,金相万,金聖鎭,鄭鎭肅,金榮秀,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 · 吳志哲
理 事 | 金紅男 · 朴仙卿 · 朴亨植 · 申硯均
安聖基 · 李健茂 · 李斗植 · 李仁洙
田永采 · 鄭明勳 · 池健吉 · 崔科南
監 事 | 金義炯 · 鄭建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 · 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 · 금관 · 은관 · 청자 · 백자 · 수정회원으로 나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 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원, 은관회원 삼천만원, 청자회원 일천만원, 백자회원 오백만원, 수정회원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법인

■ 금관회원

팬택&큐리텔 박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 은관회원

(주)종합전기 金鍾漢

» 개인

■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 은관회원

柳昌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 삼성물산 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瓚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름지기 이사
田永采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明姬
朴仙卿
李起雄
辛永茂
李仁洙
辛炳讚
朴載蓮
李鈴子
柳芳熙
朴海春
金宗學
都炯泰
申聖秀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洪錫肇 전 광주고검장
李興杓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金惠蓮 대학강사
崔科南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李健茂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韓載京
柳憲辰 (주)씨큐텍
李殷子
鄭叔熹

책을 만들면서

앞마당 모란과 명자나무에
붉은 물이 오른다.
봄, 새 봄이다. (정)

때 늦게 불어대는 찬 바람도
살포시 피어오르는 봄의 온기를
이기지는 못하나 봄니다. (애)

버들가지 하얀 솜털은
방울방울 구슬을 만들고
꽃망울을 터트리기도 전에
茶香이 아련히 스며들어
가만히 설레임으로 다가온다. (리)

삼월에 내리는 눈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은
또 보고싶어서 일까?(水)

봄
비
차
아우라에 쌓인 흙 음절
바로 詩이다.
꽃, 달, 꿈
간결하고 개운한 끝맛도 좋다. (河)

벌써 며칠째 꽃을 시새는 눈이 날립니다.
올 봄은 얼마나 찬란할까요. (진)

발행일 | 2007년 3월 15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 · 정혜리 · 조애경 · 진수옥 · 하영남

진행 | 이진성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